

Ⅱ. 未來社會에 對備한 山林基盤造成 對策

경상북도 산림과
최 주 대 사무관

Ⅰ. 未來社會와 山林의 役割

우리 속담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했다.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이듬해의 농사는 농부가 마련한 씨앗을 보면 추수를 가늠할 수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임업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조림수종으로 그 성패가 판가름 난다. 산림경영에서의 種苗는 한 세대뿐만 아니라 적어도 두세대 내지 200년 정도의 미래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조림의 수종선택과 우량종의 양묘는 미래를 약속하는 주춧돌이자 씨앗이므로 더더욱 중요하다.

산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자연환경의 기초시설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산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젖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종묘의 선택과 조림은 미래의 풍요와 직결되지만 우리는 아직 이 문제가 막연하게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지만 심각하게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냥 과거의 관행대로, 지금세대의 인기수종에 영합하고, 산주희망 수종에 전전하다보니 시대조류에 야합하는데 급급하여 각 자치단체는 산림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은 점차로 상실되고 임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전락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미래의 주춧돌이 되는 종묘산업도 지난날의 획일적인 조림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후자는 경제수로의 수종갱신 조림의 필요성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림에서 수종선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임업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해 농사의 예측도 어려운데 수십년 수백년 후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가 과거 언제부터 산림의 휴양욕구 충족을 위한 조림정책을 폈으며 수액채취를 예상하고, 송이채취를 예상한 조림정책을 편적이 있었던가? 소나무는 망국송이고 수액채취나 휴양 수종은 잡목이라 하여 천덕꾸러기가 아니었던가? “못 생긴 나무가 산

을 지킨다"라는 속담에 어울리더라도 하듯이 용하게도 불품없던 천연잡목들이 기특하게 잘 자라주어서 휴양림도 되고 경관림도 되었으며 수액채취에도 일조하고 망국송의 소나무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 했을까? 그것은 소나무나 토종의 잡목들이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수종이었고 또한 우리사회의 도시화로 인하여 인스턴트화한 인간들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인 숲으로 되돌아가려는 욕구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날에는 조림을 할 때 현재의 산림수요에 대한 예측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다. 당시에 우리산림은 너무나 척박하였기 때문에, 예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림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척박한 땅에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는 수종을 찾았고 「절대녹화」라는 케치프레이즈 아래 미련스러우리만치 심기만 하여 그나마도 오늘날의 푸른 산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 결과 이제는 척박하였던 산림토양도 몰라보게 비옥해 졌고 산에 대한 국민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범생이의 시대는 가고 전문가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이 시점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고 그 수요에 걸 맞는 임업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선진국에서 배웠던 시대는 점차로 지나가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서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배우러 오는 전문화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21C 세계는 경제적인 국경은 점차 사라지고 무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 지며 우리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리라는 것은 막연하게나마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환경의 오염과 지구의 온난화는 지역적 자연환경을 엄청나게 변하게 한다. 오랜 세월동안 그 지역에 뿌리박고 살던 많은 토종식물들은 멸종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기도 할 것이다. 반면에 환경 적응력이 강한 종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고 새로운 종들이 귀화하여 토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식물자원은 새로운 산업소재가 되어 세계 각국은 자국 식물자원의 보호를 더한층 강화할 것이고 자연환경에 대한 규제도 더욱 엄격하여 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5천만과 G.N.P 3만불의 시대로 접어들어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어 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경제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안정되면 오래살고 싶고 자기의 건강과 자연으로의 회귀욕구가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1997년 제4차 산림기본계획 수립 당시 산림청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산림에 대한 국민욕구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은 공익기능이 89.5%, 임업적 기능이 10.5%라는 조사결과가 나왔고 그중에서도 특히 임업적 기능에 목

재생산이 6.3%, 특용임산물생산이 4.2%라는 결과가 나왔다. 산림의 공익기능이 약 90%가 된다는 것과 특용임산물이 일반적인 임업생산액의 40%상당을 차지한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특용임산물과 부산물의 총생산액은 목재생산액의 자리를 밀치고 점차 주인의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미래사회는 사회구조의 다원화로 자연에 대한 휴양욕구도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것이고 임산업의 시장은 식물유전자원과 각 지역의 특수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브랜드화한 특용임산물들이 경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는 우량한 형질의 종묘를 각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따라 적지적수 원칙에 의거 조림한 수종들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산림의 휴양기능도 단순한 휴식의 차원을 넘어 기성 테마 휴양으로 다양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약속하는 조림수종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휴양욕구, 자연식품, 특용재질의 목재, 식물생태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 이러한 수종은 환경적응력이 강한 수종, 우리 환경에서 특별히 우수한 효능이나 품질이 되는 수종, 새로이 토착화될 수종 등이 될 것이다.

II. 慶北의 林業與件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지형의 습곡도가 높은 산악국가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림업은 광활한 면적을 가진 토지대국과 양적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경제국경이 사라질 때는 경쟁력이 없게 된다. 더구나 산림의 소유규모는 10헥타미만 산주가 전체의 96%로서 평균 2.4헥타로 영세하기 짝이 없어 실질적으로 목재임업은 경영이 불가능하다. 국토가 녹화되었다고 하지만 심은 지 반세기도 안 되는 빈약한 축적을 가지고 있고 경북의 경우 전체산림 면적의 60%가 조림지이며 조림지의 90%가 녹화조림지로서 장기적으로 경제수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임업의 발전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녹화단계, 자원조성단계, 자원화단계로 했을 때 이제 겨우 자원조성 초기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자원조성단계는 녹화조림지의 대대적인 수종갱신과 육림사업을 하여야 되는 시기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외환위기이후 육림사업은 국민적 지지를 받아 매년 약 23천헥타 내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종갱신조림사업은 산주의 인식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제4차산림관리계획 이후 매년 약 1,500ha 정도밖에 시행하지 못하여 부진한 실정에

있고 그나마도 조림수종 선정은 과거 녹화조림시절의 획일적이고 타성에 젖은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처한 현재의 여건은 아주 불리한 여건에 있으나 반면에 유리한 여건도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극동의 중심지로서 대륙의 관문이며 풍부한 강수량과 온화한 기후로 옛날부터 산이 아름다워 금수강산이라고 불리었다. 뿐만 아니라 독특한 기후환경에서 나오는 특수한 임산물이 많아 다양한 산림문화의 뿌리가 있어 개발을 잘하면 발전 잠재력도 무한하다. 특히 우리 경북은 전국 사유림면적의 21%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산림용도로써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장 사랑하는 목재인 금강송의 주산지이기도 하며 산이 많아 다양한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한 임산물이 많아 영약의 고장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송이버섯 등 산림부산물도 전국최고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유형무형의 자원을 미래의 산림수요와 잘 아우른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산과 숲과 사람이 한데 어우러지는 복된 고장이 되리라 믿어진다.

Ⅲ. 21C를 林業을 위한 戰略

다가오는 세대에 예상되는 산림의 역할은 산림공익기능과 휴양, 목재, 특용임산물, 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임업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열악한 조건은 좁은 국토, 영세한 소유규모, 빈약한 산림자원, 산주의 무관심을 들 수 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여건은 다양한 식생환경, 아름다운 국토, 뿌리 깊은 전통, 선진국으로의 도약, 자연식품,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국민욕구, 극동의 중심, 대륙의 관문을 들 수 있다. 산림자원 조성의 초기단계에 있는 현재 우리 도의 임업은 이러한 미래의 임업수요와 현재의 여건을 잘 조화시켜야 하는 시작점에 와 있다. 따라서 지금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 중에서도 특히 기초가 되는 것은 씨앗과 묘목이다. 어떤 종묘를 어디에 어떻게 심느냐는 다음 세대의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북은 미래의 복지임업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기후환경에 맞는 우수하고 특별한 종묘의 선택, 소득개념에 대한 발상의 전환, 인간의 친자연화를 위한 방안 강구, 최선진화로 가기 위한 전문가의 양성 이라고 판단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종묘의 선택기준을

첫째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자라는 나무를 대표 수종으로 정하여 조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고려되는 사항은 노거수의 존재 여부, 천연림에서 우점종을 들 수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우리만 갖고 있는 희귀 수종을 꾸준히 발굴한다. 환경의 변화로 식물종이 점차 멸종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희귀수종은 무한한 상품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지난 해 우리 도는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전문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셋째 세계 어디에서나 흔하게 자라고 있어도 특정지역에서 특별한 효능을 가지거나 우수한 재질을 가지는 나무를 적극 장려한다. 예를 들면 소나무는 가장 넓은 기후대에서 분포하지만 울진, 봉화의 금강송은 울진 봉화의 기후환경만이 생산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다.

넷째 어떤 수종이 인간의 친자연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를 고려한다. 지금까지는 소득이라고 하면 재배, 채취의 관념에서만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무엇이든 인공재배로서는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다양한 여건의 자연생태환경을 조성하여 관람, 관광, 휴양, 체험, 자연산, 부산물 등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관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발굴하여 주 소득의 개념으로 삼고 있다. 안동의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에 조성되는 생태 숲은 이러한 관점에서의 소득화를 위한 연구기지로 조성하고 있다.

다섯째 앞으로의 변화되는 환경과 생물종의 멸종에 대비하여 생물자원경재에 대비하여 다양한 식물 종을 확보한다.

여섯째 이상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양성한다. 전례 답습과 모방적으로 아무나 수행하는 후진적 사고의 임업 행정, 즉 「임업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관념에서 「임업인은 어떠한 자연과학 분야의 행정도 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 육성한다. 이렇게 하여 미래지향적 이고 고유한 모델의 사업을 창출하고 설계해 내는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에 노력 할 것이다.

IV. 未來林業을 위한 造林政策

1. 山林資源의 地域 브랜드화 推進

(1) 금강송 육성

금강송은 유전적으로는 일반 소나무와 같으며 일명 울진소나무 또는 춘양목이라고도 한다.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향토수종으로 태백산과 소백산을 중심으로 경북의 울진과 봉화를 비롯하여 강원도 태백지방 자생하고 있는 지역 특이수종이다. 일반소나무 보다 생장이 빠르고 나무줄기가 곧고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울진, 봉화지역의 금강소나무 숲은 원형이 대체로 잘 보전 되어 있어 학술연구, 유전자증식 등의 가치가 뛰어나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경북지방의 금강소나무 분포면적은 약 21,700ha로 울진의 불영사계곡일대 4,658ha와 소광리 일대 1,610ha, 그리고 봉화군지역에 15,432ha가 있으며 임상은 수령이 평균 150년(10~520)이며 수고 평균 23m(6~35)이고 흉고직경은 평균 38cm(6~110)으로 ha당 평균축적이 300m³으로 추정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울진 소광리의 금강소나무림은 조선시대부터 황장림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특별관리를 하여 온 역사가 깊은 나무이다. 일명 춘양목이라고 불리어진 것도 지난날 울진과 봉화 등 경북북부지역의 소나무들이 봉화의 춘양역을 통하여 서울 등지로 반출되었고 그 나무의 재질이 특별히 좋은 데에서 유래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금강소나무의 재질은 황인장 강도가 수입 소나무의 대표적인 미송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재문화가 소나무에 뿌리를 뚫으로써 목조건축문화재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어 문화재 용재로써의 가치가 뛰어나 금강소나무가 아니면 대체가 불가능한 실정은 물론 송이자원의 보고이기도 하여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재질의 우수성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 우리 머리 속에 깊이 각인된 나무들이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 되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소나무림은 확실한 데이터는 없지만 지금까지 사라져가는 추세로 보아 앞으로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약 100년 후면 우리주변에서 소나무를 보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것은 학자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다. 소나무의 쇠퇴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무

엇보다도 금세기를 휩쓴 솔잎혹파리 등 병해충 피해, 부식층의 퇴적 등으로 인한 수세의 약화, 기후 변화로 인한 활엽수 번성,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에 하층식생의 번성으로 인한 후계림 조성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약 4년 전부터 금강송 뿐만 아니라 소나무조림을 늘리기로 하고 형질이 우수한 금강소나무의 양묘를 권장하여 산불피해지의 송이 생산림 복원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금년부터 그 동안 학계의 강력한 건의와 울진군과 봉화군 등 금강송이 분포한 시군에서 수회에 개최한 학술심포지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금강송 육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표1 소나무 양묘현황

성 묘		유 묘		비 고
묘령	본수(천본)	묘령	본수(천본)	
계	1,539		3,311	
1-1	879	1-0	2,833	
1-1-2	270	1-1-1	362	
1-0	390	1-0	116	

이 계획에 따라 우리 도는 2004년도에 봉화·울진지역 200ha에 국비 3억5천만원, 지방비 3억5천만원, 총사업비 7억원 을 투자하여 금강송을 육성키로 하고 금년 봄에는 대학의 전문교수를 초빙하여 관계공무원 및 산림조합실무자들과 현지토론으로 후계림 조성을 위한 자체 실무지침을 마련하였다. 현재 이 지침에 따라 설계 전문업체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다.

(2) 은행나무 특화단지 조성사업

은행나무는 2억년전부터 생육하여 “살아있는 화석”으로 부르고 있으며 빙하기 이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만 분포한다.

우리 도에는 표고 500m이하이면 어디든 식재가 가능하다. 적지는 양분과 수분이 많은 계곡이나 산록이 유리하다. 단지 부산물인 잎이 약재, 차, 술, 스프, 죽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에 심겨져야 한다.

은행나무에 함유된 유효성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보다 20~100배로 더 추출된다고 한다. 이는 세계도처에 있지만 한국산이 특히 우수한 품질이라는 원칙에 합당하다. 열매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영양이 풍부하여 각종 요리의 부재료, 술안주, 술 제조 등에 이용된다. 그리고 약재로는 잘 알려진 대로 징코민의 원료가 되며 알고스테린 등의 성분을 함유하여 폐 기능 강화, 가래, 천식, 전신피로회복, 성욕감퇴, 여성대하증, 야뇨증치료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 목재는 재질이 우수하며 행자목이라 부르며 바둑판, 도마 제작 등으로 쓰이며 가구, 공예, 건축 등에 이용되는 생장이 빠른 고가의 경제성 수종이다.

은행나무는 수명이 긴 나무이다. 그러나 은행나무라고 하여 모두가 천년을 살고 느티나무라고 하여 모두가 오백년을 사는 것은 아니다. 기후환경과 토질 등 입지여건이 생육에 적당해야 가능하다. 노거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이 바로 그 나무의 생육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자란나무가 그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경북안동지방에는 천연기념물 제175호인 유명한 용계 은행나무가 있다. 그래서 안동시에서는 안동시의 시목이기도 한 은행나무를 안동의 대표적인 브랜드수종으로 정하고 2003년부터 은행나무 10만그루 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4까지 579백만원을 투자하여 3만본을 식재하였으며 특히, 용계은행나무 주변을 은행골로 조성하여 관광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안동과 연접한 봉화군은 대표적인 산촌이며 청정지역으로서 춘양목과 은행나무를 대표수종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2004년에는 안동과 연접한 명호면 일원에 15ha의 은행나무단지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단지는 봉화의 대표적인 산림축제인 송이축제, 청량산 산사음악회, 산악레저레프팅과 접목되어 관광자원으로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들 2개시군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은행나무 심기사업을 매년 추진하여 주요도로의 가로수 식재로 은행단풍가로조성과 은행나무 테마공원조성 및 은행잎을 첨가한 혼합사료 개발 보급 등으로 농가소득에도 일조하는 등 봉화와 안동을 은행나무 특화단지로 계속 조성해 나가 세계적인 은행나무 집산지로 부각시킬 것으로 믿는다.

(3) 기타 브랜드로 육성 가능한 수종들

우리 도와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고려하고 있는 수종은 고령과 경산에는 참죽나무 특화단지 조성, 상주 의성의 산수유, 청도 상주의 감나무, 성주의 고로쇠나무 등을 들 수 있다. 참죽나무는 재질이 우수하여 고급가구, 악기, 공예재료로 쓰인다. 그리고 수피는 한방

재료로 쓰인다. 특히 잎은 최근의 자연산 식품의 붐을 타고 없어서 못 파는 인기품목으로 부상하였다.

이들 지역은 대도시 근교로서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상주의 등시감은 옛부터 꽃감재료로 가장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고 있고 청도에 감은 무조건 씨앗이 생기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왜 청도에서만 씨앗이 생기지 않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 금강송과 같이 그 지역의 독특한 환경조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런 것이 바로 다른 지역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된다. 상주의성의 산수유도 다른 지방보다 이 지방에서 특별히 잘 자라고 약효도 우수하다고 하며 성주의 고로쇠는 가야산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붐을 알리는 전령으로 농가소득에 톡톡히 한몫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친환경성 재료에 대한 웰빙(Well-Being)바람으로 건축, 재재, 무늬목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백합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산벚나무, 음나무 등도 미래에도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유용수가 되리라고 믿어진다.

각 지역은 그 나름대로의 기후환경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임산물에서 특별히 우수한 품질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도는 내년부터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그 동안 조사한 산림입지조사도 등 자료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별 특화 수종을 정하여 지난 70년대의 녹화조림지의 수종갱신조림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 基本的인 郷土樹種의 獎勵

우리나라 산림 어디에서나 자연 상태에서 가장 잘 자라는 나무는 소나무·참나무류다. 이들 나무는 경관림이나 급경사지 공익임지 등 수확이 자유롭지 못한 임지에 심어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공조림이 불가능한 암석지나 척박지에서도 잘 자란다. 지역별 브랜드 수종이란 산록부의 토질이 비교적 비옥한 임지나 언제라도 수확이 자유로운 임지에서 권장되는 수종이고 그 외의 임지는 생산임지든 경제림 단지든 이 두 수종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산림수종이다.

소나무는 한국의 대표수종이고 누가 무어라 해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나무 중 가장 으뜸이 되는 나무로써 나무와 관련한 우리문화는 소나무 문화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동안 자연적 인위적 환경의 변화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목재의 생산보다는 부산물인 송이의 생산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조경수로써도 각광을 받고 있다.

표2. 최근 4년간의 송이 생산량

(단위: 톤)

구분 \ 년도	'00	'01	'02	'03	비고
경북	260	143	190	121	
전국	316	159	225	155	

위표는 산림조합 공판량 기준이어서 일반유통량이 제외된 수치이지만 경북의 송이 생산량은 전국생산량의 84%를 차지하여 농산촌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참나무류는 옛부터 쓸모없는 잡목으로 취급되어 벌채 후에는 거의 침엽수로 갱신 조림되었다. 그러나 사유림의 경우 조림 후 조림한 침엽수는 거의 없어지고 조림당시의 하층식생이었던 참나무류가 우점종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임목축적의 약 30%정도나 된다고 한다.

참나무는 소나무와 생태경쟁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참나무가 무성하여지면 소나무는 점차 쇠퇴하여 가는 상극관계에 있다. 이는 식생천이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참나무류는 어디에서든 잘 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향토수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나무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최근에 표고버섯이 각광을 받으면서 표고자목으로써도 이용도가 높고 열매는 훌륭한 자연식품으로써 전국 어느 관광지에서나 인기가 높은 식품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내연산 등 집단 생육지구는 아름다운 단풍을 배경으로 전국축제도 검토하고 있다.

표3. 최근 4년간의 소나무 참나무 조림량

(단위:천본)

수종 \ 년도	'01	'02	'03	'04	비고
소나무	210	161	210	368	
참나무	126	185	160	498	

따라서 경북에서는 표고재배 농가가 많은 까닭에 표고자목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하여 산림청의 시책에 맞추어 지난 2002부터 2004까지 시설양묘를 위한 온실 7개동 1,645평과 관정시설은 9개공을 확충하였으며 필요하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조림량도 점차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 상수리용기묘 양묘광경 〉

4. 土種植物의 所得化를 위한 生態糾明

토종식물은 우리기후에서만 독특한 효능을 가질 수 있는 식물이 많고 차별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식물이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식물을 순수 자연산으로 생산하여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떠한 식물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우리 도는 안동호반에 조성하는 생태 숲을 특수용재·산약초·약용수목 등 전통 토종식물의 생태를 규명하기 위한 기지로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작년에 우리 도는 산림자원 종합개발사업소를 설치하여 전문연구원 3명을 확보하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인공이 가미되지 않고 순 자연 상태에서 식물상호간의 작용과 특별한 지질 기후 환경에 따라 어떠한 특수효능을 발생케 하는지의 연구결과는 그들의 생육환경을 조성할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토종 식물 중 자연산 식품이나 특수용재로의 연구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 수종들로는 음나무, 오갈피, 가시오갈피, 헛개나무, 참중나무, 옷나무, 초피나무, 생강나무, 쪽동백, 고로쇠, 자작나무, 거재수, 산뱀나무, 황벽나무, 산사나무, 살구나무, 매실나무, 돌배나무, 모과나무, 대추나무, 구기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하층식생을 구성하고 있는 더덕, 산도라지, 자초, 산마늘, 장뇌삼, 곰취, 참취, 둥글레 등 우리토종 식물들은 자연산으로 대량생산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